

고성군, 통일전망대 출입 제한 인원 완화

입력 2021-01-19 23:48:27 수정 2021-01-20 02:57:36

뉴스9(강릉)



고성군은 22사단 등과 협의를 거쳐 이번 주부터 통일전망대 출입 제한 인원을 평일 기준 하루 300명에서 500명으로 완화했습니다.

또, 500명이던 주말 인원은 천명까지 확대됩니다.

다만,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, 전망타워 내 2층에서 4층까지 폐쇄됩니다.

고성군은 또, 이달 말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DMZ박물관 등 관광시설의 재개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.



정면구 기자 nine@kbs.co.kr
기자의 기사 모음

저작권©KBS뉴스(http://news.kbs.co.kr),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